

# FA 임기영 3년 더... KIA '마운드 지도' 완성

KIA 타이거즈가 임기영과 FA계약을 체결하면서 마운드 전력을 지켰다.

KIA는 지난 21일 사이드암 투수 임기영과 3년 총액 15억원(계약금 3억원, 연봉 9억원, 옵션 3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경복고를 졸업하고 2012년 프로 무대에 뛰어든 임기영은 지난 2014년 송은범의 FA 보상선수로 KIA로 이적했다. 이후 상무야구단에서 군복무를 한 임기영은 2017년부터 KIA 유니폼을 입고 마운드에 올랐다.

임기영은 KIA에서의 첫 시즌이었던 2017년 23경기에 나와 118.1이닝을 소화했고, 3.65의 평균자책점으로 9승 6패를 기록했다. 9승 중 2승은 9이닝 동안 단 한 점도 내주지 않은 완봉승이었다.

KIA 마운드의 새 전력으로 급부상하면서 2017년 정규시즌 우승을 이끈 임기영은 한국시리즈에서도 승리를 추가했다. 임기영은 두산과의 한국시리즈 4차전 선발로 나서 5.2이닝을 무실점으로 책임지면서 'V11'의 중심에 섰다.

11시즌 동안 통산 285경기에 등판한 임기영은 평균자책점 4.80과 함께 51승 59패 4세이브 21홀드를 기록했다.

지난 시즌 불펜으로 자리를 옮긴 임기영은 64경기 82이닝을 소화하면서 평균자책점 2.96, 4승 4패 3세이브 16홀드의 눈부신 성적을 작성했다.

3년 총액 15억원에 계약 완료

'우승 주역' 네일과 지난달 재계약

조상우 영입해 불펜 공백도 지워

황동하·김도현 등 우수자원 풍성

내년 시즌 견고한 마운드 밑그림

하지만 지난 시즌 많은 이닝을 소화했던 임기영은 올 시즌 ABS(자동 투구 판정시스템) 영향까지 받으면서, 37경기(45.2이닝)에 나와 2승 6패 2홀드 평균자책점 6.31을 기록하는 데 그쳤다.

FA를 앞두고 만족스럽지 못한 성적을 냈지만 앞서 '전투후 투수'로 활약한 임기영은 그라운드 밖에서도 마운드 허리 역할도 하는 등 KIA 전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임기영은 "다른 구단으로 이적은 생각하지 않았다"며 "열정적인 KIA팬의 합성을 다시 들을 수 있게 돼 기쁘다. 올 시즌 기대에 못 미치는 성적을 내 팬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컸는데, 잘 준비해서 팀의 한국시리즈 2연패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FA 계약 소감을 밝혔다.

KIA는 임기영과의 FA계약을 통해 마운드 밑그림을 그렸다.

앞서 KIA는 올 시즌 우승 주역이었던 '에이스' 제임스 네일과 일찌감치 재계약에 성공하면서 연패 도전에 청신호를 켰다.

KIA는 지난달 27일 네일과 총액 180만 달러(계약금 40만, 연봉 120만, 옵션 20만 달러)에 재계약을 하면서 선발 큰 축을 지켰다. 이어 올 시즌 마이애미 말린스 소속으로 빅리그에서 선발로 8경기에 출전한 아담 윌러를 새로 영입하면서 '외인 원투펀치' 구성을 끝냈다. 여기에 장형식의 이탈 공백을 메우기 위해 트레이드도 감행했다.

KIA는 지난 19일 키움과의 트레이드를 통해 KIA는 현금 10억원과 2026년 신인 1·4라운드 지명권을 내주고 마무리 출신 조상우를 영입했다.

프로 통산 9시즌 동안 343경기(419.1이닝)에 출전한 조상우는 평균자책점 3.11, 3승 25패 54홀드 88세이브를 기록한 검증된 자원으로, 2015-2019년 프리미어 12 대표는 물론 2020 도쿄 올림픽 대표로도 참가했다.

네일과 임기영을 붙잡은 KIA는 불펜 공백도 지우면서 '왕조재건'을 위한 틀을 다졌다. 여기에 올 시즌 선발 경험을 쌓은 황동하, 김도현과 함께 김기훈, 유승철 등 기대주들의 경쟁을 통해 2025시즌의 견고한 마운드를 완성하게 될 전망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사이드암 투수 임기영이 지난 21일 KIA와 3년 총액 15억원에 FA 계약을 맺었다. <KIA 타이거즈 제공>

## 내년 프로야구, 3월 22일 개막 144경기 대장정

KIA, 홈에서 NC·키움과 5연전

홈 71경기-원정 73경기 일정

어린이날 월요일 경기 편성 9연전

울스타전은 7월 12일 대전서 개최

KIA 타이거즈의 '연패' 도전이 2025년 3월 22일 광주에서 시작된다.

KBO가 2025 정규시즌 경기 일정을 확정해 발표했다. 토요일인 3월 22일 144경기 대장정의 막이 오른다.

개막전은 2024시즌 팀 순위에 따라 상위 5개 팀의 안방에서 치러진다. 이에 따라 '통합 우승'을 차지한 KIA는 홈에서 NC 다이노스를 상대로 개막전을 치른다.

광주와 함께 잠실 (롯데-LG), 문학 (두산-SSG), 수원 (한화-KT), 대구 (키움-삼성)에서 개막 2연전이 전개된다.

두산 베어스는 이번 시즌 4위를 차지했지만 3위 LG 트윈스와외의 구장 중북으로 원정으로 개막전을 갖는다. 대신 6위 SSG 랜더스가 홈에서 시즌 첫 경기를 소화한다.

NC와의 2연전을 통해 시즌을 여는 KIA는 주중 첫 3연전도 홈경기로 치른다.

상대는 키움 히어로즈다. KIA는 3월 25일부터 27일까지 키움과 챔피언스필드에서 주중 3연전을 갖는다.

KIA의 첫 원정지는 대전이다. KIA는 3월 28일(금)부터 한화 이글스의 새 안방으로 건너가 2025 시즌 첫 원정 3연전 일정을 소화한다.

5월 5일은 월요일이지만 어린이날을 맞아 '월요일 경기'가 편성된다.

하루 앞당겨 월요일부터 3연전이 전개되면서 각 팀은 4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9연전을 치른다. 어린이날로 인한 요일 변경으로 이 주에는 목요일인 8일이 휴식일이 된다.

KIA는 고척으로 가서 키움을 상대로 어린이날 경기를 갖는다. 또 잠실 (LG-두산), 대전 (삼성-

한화), 사직 (SSG-롯데), 창원 (KT-NC) 구장에서 어린이날 경기가 진행된다.

울스타전은 7월 12일(토) 대전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번 시즌 4일로 축소됐던 울스타전 휴식 기간은 6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7월 11일(금)부터 16일(수)까지 프로야구가 쉬어간다.

정규시즌 후반기는 목요일인 7월 17일부터 4연전으로 치러진다. KIA는 NC를 상대로 홈 4연전을 갖고, 후반기를 연다.

개막 2연전과 후반기 첫 4연전을 제외한 모든 경기는 3연전으로 편성됐다. 8월 31일까지 팀당 135경기가 편성됐고, 미편성된 경기는 우선 등으로 취소되는 경기와 함께 추후 편성된다.

한편 2연전 폐지로 인한 격년제 원칙에 따라 2025시즌에는 두산·KT·SSG·롯데·한화가 '홈 73경기-원정 71경기'를 치른다.

KIA는 내년 시즌 '홈 71경기-원정 73경기' 일정을 소화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페퍼스 '구단 최다승'

### 다음기회에...

페퍼저축은행 시퍼퍼스의 세트 박사랑(오른쪽)이 22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IBK기업은행 알토스와의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공을 띄우고 있다. <KOVO 제공>

## 'V리그 3R' 홈에서 기업은행에 1-3 패...6승 도전 실패

페퍼저축은행 AI페퍼스가 구단 신기록 달성을 다음으로 미루게 됐다.

페퍼스는 22일 광주 페퍼스타디움에서 열린 도드람 2024-2025 V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IBK기업은행 알토스에 세트스코어 1-3(26-24 25-22 25-20 23-25)으로 패했다.

페퍼스는 이날 경기에서 구단 최다승(6승) 기록에 도전했지만 '구단 신기록'으로 가는 길은 만만치 않았다. 접전 끝에 1-2세트를 내준 페퍼스는 25-20으로 3세트를 가져온 뒤 4세트에서 막판 추격에 나서지만 아쉽게 먼저 25점을 내주면서 기록 달성을 미뤘다.

1세트에서 페퍼스는 서브에이스로 선취점을 따낸 하혜진과 득점 흐름을 연결한 박정아를 앞세워 6-2까지 치고 나갔지만, IBK에 8-7까지 따라잡히면서 초반 접전을 이어갔다.

20-22로 뒤진 상황에서 박정아가 강하게 내려친 공이 상대 이주아의 손을 맞고 나갔고, 박사랑이 욱서영의 공을 막아내면서 승부가 22-22 원점으로 돌아갔다.

이어 23-23에서 하혜진이 오픈으로 역전과 함께 세트포인트를 만들었지만 테일러의 백어택이 네트를 넘기지 못했고, 이한비 킥오픈이 이주아에 가로막히면서 1세트를 내쳤다.

따라잡고 따라잡히는 형국이었던 2세트 초반, 긴 랠리 끝에 박정아가 2점을 따내고 빅토리아의 킥오픈이 코트 밖으로 나가면서 3-0이 됐다.

중반 16-16 동점을 허용한 페퍼스는 박정아의 오픈과 킥오픈 성공으로 18-16, 2점 차로 앞서기도 했지만 22-24에서 빅토리아의 공격을 막아내지 못하면서 2세트도 기업은행에 내쳤다.

페퍼스는 테일러의 블로킹 득점과 이한비 스파

이크 서브 성공으로 3세트도 선취점을 따내고 시작했다.

상대의 공격 범실이 이어지면서 리드를 이어간 페퍼스는 18-15에서 이한비의 연속 득점으로 20점에 먼저 도달했다.

그리고 3세트에서 맹활약한 이한비가 오른쪽에서 쉰 오픈을 내리쬐었다. 공이 상대 이소영의 손을 맞고 나가면서 페퍼스가 이날 경기 첫 세트를 가져왔다.

0-3으로 시작한 4세트에서 하혜진이 블로킹과 서브 득점으로 분위기를 바꿨지만 기업은행의 기세가 만만치 않았다. 리드를 잡은 기업은행이 연속 5득점으로 23-13까지 달아났다.

홈팬들의 뜨거운 응원을 받은 페퍼스가 쉽게 물러나지 않았다. 페퍼스는 연속 7득점에 성공하면서 20-23까지 따라잡았다. 그리고 이한비가 폭발적인 공격으로 23-24, 1점차를 만들었다.

하지만 욱서영의 킥오픈으로 4세트도 기업은행의 승리로 마무리됐다.

26일 정관장 레드스파이크스와의 홈경기에서 '6승' 달성을 노리게 된 페퍼스는 5위(5승 11패-승점 16)를 유지했고 '4위' IBK기업은행(10승 6패-승점 19)은 승점 3을 더하면서 격차를 더 벌렸다. 한편 테일러가 팀 최다인 21득점(공격성공률 33.33%)을 올렸고 박정아가 14득점(34.21%), 이한비가 13득점(25%)으로 뒤를 이었다.

팀 공격 성공률은 31.69%로 상대(31.69%)와 동일했지만 리시브 효율에서 상대의 31.4% 기록에 크게 못 미치는 18.68%로 수비가 아쉬웠다. 또 서브 득점과 블로킹 득점도 각각 5-6, 6-12으로 기업은행에 뒤졌다.

/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